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연구개발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는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철벽으로 보위하기 위한 강위력한 방위수단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을 울리며 대지를 박차고 기운차게 솟구쳐오른 반항공요격로케트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멀적의 비행운을 새였다.

기며 적공종목표를 정확히 타격소멸하



구개발제작한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

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출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
는것이 검증확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중시하고 있는 반항공요격유도무기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파시로 된다고 대만족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동홍산기계공장과 리철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성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본사기자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유엔력사상 그 레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제재결의』를 만들어내고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배심든든히 자기가 선택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최악의 역풍을 과감히 맞받아나가는 공화국의 남다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에 있다.

지난 2월 말 적대세력의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발표되자 단 이틀동안에 근로 청년들, 대학,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무려 150여 만명의 각계층 사람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한 사실, 원쑤들의 제재를 증산의 동음으로 짓누르며 생산과 건설에서 보다 큰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굳건하며 위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의 굳건한 일심단결은 세기를 이어오는 고귀한 전통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과 같이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령도자의 뜻과 령도를 따르는 혼연일체는 어떻게 마련되고 어떻게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

하나로 뭉친 억센 힘으로

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공화국의 고귀한 전통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두명의 신입대원이 농민이 성의로 준 소를 가지고 온데 대하여 비판을 받고 다시 소를 끌고 가 주인에게 돌려준 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인민을 위하시였는지 잘 알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런 분이 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라는 새로

운 지론을 내놓으실 수 있은 것 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일심단결은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에 의하여 공화국

의 고귀한 전통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어

핵파 보총파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거만한 쿠데를 꺾어놓

는 승리의 기적을 안아올수 있

었으며 전후 백년이 걸려도 일

떠설수 없다는 미국의 궤변을

짓부시며 복구건설을 짧은 기

간에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또 남들이 몇

세기를 걸쳐 완수하였다는 공

업화의 역사적 과제도 불과 14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

국을 일떠세운 것도 일심단결의

힘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

은 모든 것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더욱 높이 발휘되었다.

민족의 대국상과 헌이은 자

연재해,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책동은 조선의 운명을 시

시각각 위협하였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말기고 가

신 조국과 인민을 지켜야 한다

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드시

고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결으 시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

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으시고 쪽잠파 채기밥으로 눈보라

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

행군, 일행천리강행군과 같은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는 전체 인민을 하나로 굳게

결속시켰고 강성국가건설의 튼

튼한 도약대를 마련하는 기적

을 안아오게 하였다.

2003년 2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의 혼연일

체에 대해 자신께서는 군인들

과 인민들을 그리워하고 군인

들과 인민들은 자신을 그리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은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고귀한 명언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그리워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더욱 활짝 꽂펴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받들어 모시듯이 인민을 위해 애 한다고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하도록 하시는 숭고한 인민관, 군인들을 찾아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최대 열점지역에까지 나가시는 불보다 뜨거운 사랑, 수해 지역 인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 머나먼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피해 지역을 찾고 찾아주시는 그이의 친어버이 사랑에 온 나라가 매헤 되었고 그이와 혈연의 정으로 더욱 굳게 뭉칠 수 있게 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봉쇄 압살책동에 맞서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 어떤 침략 위협도 쳐물리치고 자강의 힘으로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그 무엇으로 써도 깨뜨릴 수 없는 불패의 일심단결, 이 만능의 보검을 높이 틀어쥐고 공화국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압살책동도 과감히 짓부시며 이 땅우에 보란 듯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때로부터 4년이 흘렀다.

지난 4년간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분을 령도자로 모시였는가를 날마다 가슴뿌듯이 느끼며 그이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격동과 환희의 나날들이었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국가와 인민에게 나아갈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 그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는데서 표현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령도적인 첫 연설을 하

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끈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 승리가 있다는 고전적 정식화로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정확히 명시하였다. 그리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철옹성 같이 수호하면서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안아올 수 있게 하는 정확하면서도 혁명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병진로선은 미제의 가증되는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

탁월한 령도의 4년

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희한한 전변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르는 곳마다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 공장, 표준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가 적극 실현되어 생산의 동음높이 올리고 있으며 황금해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파일향기 만발하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있다.

이 모든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쉬임없는 혁신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때로는 비내리는 콧은 날, 삼복철의 무더위에도 건설장, 경공업 공장들을 찾

으시였고 언제인가는 하늘길, 배길, 령길을 달려 수천리 북방에까지 찾아가시여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였다.

하나의 공장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 할 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민족으로 모든 창조물을 선

편리성, 선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세우도록 하시는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형

도는 이 땅우에 눈부신 전변의 화폭들을 펼치게 하였다.

하늘에서는 자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우주에서는 인공지구위성이 아름다운 비행운을 새기는 현실, 나라의 존엄과 위력이 만방에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실 때 민족의 존엄도, 무궁번영도 이루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이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한사코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지만 불세출의 선군령장,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여 공화국은 앞으로도 배반의 혁사만을 새기며 이 땅우에 강성국가의 밝은 래일을 기어이 앞당겨올 것이다.

리수영

모든 교정들에서 새 학년도의 문을 열었다. 적대세력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의 포성도, 악랄한 제재와 봉쇄의 마수도 배움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글소리를 멈추지 못하고 산간벽지로부터 남단의 섬마을 분교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교문을 닫지 못한다.

따뜻한 4월의 봄날에 교육의 종

소리, 배움의 글소리로 포성 없는 대결전을 이기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의 모습에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교육중시, 후대중시의 정책을 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교육교양에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여 큰 재해들은 교육기관들에게 둘려지게 되었다.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보여주는 일화의 하나이다.

교육중시, 후대중시는 곧 미래사랑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 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연 480여 차례에 걸쳐 17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과 학원, 종학교, 소학교를 비롯하여 현지지도하신 각급 교육단체마다에 후대사랑의 사연 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다. 무료교육과 전반적 11년 제의 무교육제와 같은 인민적 사업들과 국가적 혜택에도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손길이 어리여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친 노력을 수십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후대관, 미래관이였다.

본사기자 리설

일별하시며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들을 누구나 처음 볼 것이라고 하시며 날개랑 꺾지 말고 표본을 잘 만들 어 학교들에 보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물고기를 보면 얼마나 신기해 하겠는가고, 자체 말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라고 하시였다. 한마리도 다른데 쓰지 말고 만경대학

명학원, 수산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 보내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큰 재해들을 놓고 그 용도를 식용으로밖에 생각지 않은 일군들은 후대 교육교양에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체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여 큰 재해들은 교육기관들에게 둘려지게 되었다.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보여주는 일화의 하나이다.

교육중시, 후대중시는 곧 미래사랑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 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연 480여 차례에 걸쳐 17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과 학원, 종학교, 소학교를 비롯하여 현지지도하신 각급 교육단체마다에 후대사랑의 사연 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다. 무료교육과 전반적 11년 제의 무교육제와 같은 인민적 사업들과 국가적 혜택에도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손길이 어리여 있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친 노력을 수십년 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래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후대관, 미래관이였다.

병진로선이 반들어 올린 승리의 쾌거

2016년은 마치 조선을 위한 해인듯 년초부터 온 세계의 시선이 평양을 향하고 있다.

새해벽두인 1월 6일 조선은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울려 흐리멍텅한 시선으로 조선을 재단해보려던 사이비학자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다. 한달이 지난 2월 7일에는 또다시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쏘아올려 세계를 놀래웠다. 최근에는 미국주도하의 유엔 《제재》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에 맞서 막강한 핵공격능력과 신형무기들을 련속 공개하며 미국에 장타를 연방 가하고 있다. 지금 세계

는 조선의 막강한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1월의 메가톤급폭음과 2월의 황홀한 비행운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황제폭탄』이라 일컫는 수소탄이 최강의 핵무력을 상징한다면 인공지구위성은 막강한 경제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수소탄과 인공지구위성! 나는 그것이 곧 병진로선의 장쾌한 승리라고 확인한다.

마침 이해의 3월은 조선이 새로운 병진로선을 선포한지 3년이 되는 의미 깊은 달이다.

조선의 핵은 평화의 장검

핵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고 또 이 행성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마의 무기로 오랜 세월 인정되어 왔다.

사람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되어 수십만을 순식간에 재가루로 만들어버린 첫 원자탄이 피여온 잔혹한 버섯구름을 핵의 상징처럼 여겨왔다.

핵은 지금까지 평화의 적이었고 인류의 공포 그 자체였다. 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인류에게 첫 핵재난을 들씌운 핵범죄자도 미국이었고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차려놓고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해온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다. 핵이자 미국이고 미국이자 핵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핵에 대한 보편적인식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핵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 발견된 지성의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망각한다. 프로메테우스의 불파도 같은 거대한 에너르기를 산생시키는 핵분열반응론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갈망한 것은 인류문명과 진보였지 살륙과 파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핵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령도자께서 천명하신 연설이 상기된다.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복한 삶도 있습니다.』

이 명제에는 핵이자 평화이고 부강번영이며 핵이자 인민들의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핵을 휘둘러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따낸 《핵만능론》자들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의이다.

단군건국이래 조선은 남의 땅에 돌한개 던진 적 없고 화살 한번 날린 적 없는 선량한 민족이 사는 터전이였다. 동방일각의 광활한 대륙에 삶의 터전을 정한 조선민족이 대대로 상무기풍을 선호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500년에 걸친 조선봉건시대에 사대와 외세의 존에 찌든 봉건사대부들이 하늘소를 타고 음풍영월만 읊조리면서 종대를 쇠부지깽이보다 못하게 여기다니니 국력이 쇠퇴하여 외세가 침범하고 세상을 경악케 하는 《율미사변》과 《아관파천》의 참극이 거리낌 없이 빛어졌으며 종당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을 터뜨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얼어 죽어 가던 독사를 겨드랑이에 품어 안고 녹여 살려주었다가 종당에는 그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고사도 있듯이 기껏 넝마로 사라구니나 가리우던 야만의 족속들에게 문물을 배워주었더니 종당에는 그 야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적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었으니 그 암울한 혁사가 새겨준 교훈은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조선민족은 미국이 강요한 핵참화를 입은 피해자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한 원자탄

재미동포언론인 강선주

유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다. 더 우기는 미국과 서방언론이 류포시키는 《북조선악마》설에 중독되어 조선의 핵보유가 마치도 세계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라도 되는 듯이 착각하고 그에 동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미국을 비롯한 5개 대국들이 주연하고 일본과 《한국》이 열성스럽게 조연하여 꾸며낸 유엔 《결의》 제2270호는 그 단적 실례이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의 핵보유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전,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수호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굳이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을 둘러싼 주변나라들은 자기것이든 남의것이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업혀있는 나라들이다. 만일 조선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조선반도는 불피코 미국이 일으키는 핵전쟁 참화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주변나라들도 이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핵이 인류에게 전쟁과 살륙을 강요하는 악마의 검이라면 조선의 핵은 지구상에서 핵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정의의 보검이다.

새로운 핵강국 조선이 탄생한 지금에 와서 인류는 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핵위협에 대처한 핵보유는 곧 평화이고 정의이다. 핵을 털어쥐면 강자가 되고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

이제 혁사가들은 조선의 핵보유로 하여 랭전시기 핵대국들 사이에 존재했던 《공포의 균형》은 《평화의 균형》으로 되었다고 혁사에 당당히 새기게 될 것이다.

강국에로의 지름길

조선이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을 때 세계는 법석 끊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강행하는 대조선고립압살행위의 강도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속에서 자체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만도 믿기 어려운데 핵무력건설까지 동시에 밀고나가겠다는 것이 파연 실현 가능한 선택인가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적대세력들은 불맞은 승냥이마냥 길길이 날뛰며 악담과 랑설을 퍼뜨렸다.

조선에 대한 리해가 부족한 사이비전문가들은 《핵》과 《경제번영》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쓰는다는 것은 《절대 성공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조선이 내놓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로선이 파연 《두마리의 토끼》를 쓰는 성공불가능의 선택이었는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시었던 경제국방진로선의 실행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의 일부 경제일군들과 학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놓고 경제건설에 몇%를 투자하고 국방건설에 몇%를 투자하겠는가에 대해 둘째를 떠리였다고 한다.

바로 그때 김일성주석께서는 병진로선은 경제건설에 몇%, 국방건설에 몇% 돌리는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미제의 전쟁책동에 대처하는 조선혁명가들의 입장과 본래에 대한 원칙적 문제이다. 경제건설도 100%, 국방건설도 100% 하는 원칙에서 밀고나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령토나 인구수로 볼 때 그리 크지 않으며 더우기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간다는 자체가 보통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국방력을 강화해야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고 사회주의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종대우에 사회주의건설의 성패여부도, 인민의 행복과 만년미래도 있다는 것이 김일성주석의 변함없는 신조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병진의 구호밑에 조선은 1960년대에 벌써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 나라도 세계의 각광을 받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종산총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던 서유럽나라들의 경제발전수준을 륭가하였다. 조선은 말그대로 신생 독립국가, 발전도상나라들의 희망의 등대였다.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제재봉쇄책동이 국도에 이르렀던 지난 세기 90년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국방공업을 중추로 하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여 사회주의보루를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톤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는 특기할 승전, 혁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그 간고했던 나날들을 헤쳐오시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의 하나가 바로 핵과 위성 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철저히 구현해오신 경제와 국방병진로선으로 걸어온 위대한 승리의 로정을 조선에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이라고 궁지높이 언명한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바로 이 위대한 전통의 계승이며 완성이다.

선대 수령들의 고귀한 한생이 깃들어 있는 선군의 총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세상이 우러러보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우시려는 김정은령도자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통하여 《인민의 행복과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반드시 이루할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시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김정은령도자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공인된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 있다. 인민군대가 내세우고 있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령도자시대에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변혁의 앞장에서서 인민군대는 창조의 능수로 되고 있다.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상전벽해와도 같은 천지개벽,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조석만변이 일어났다면 손꼽는 기적창조의 주인공은 아름아닌 총대를 들어쥔 인민군인들이다.

병진은 승리한다

어떤 로선이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령도능력, 수행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파악적령도와 강력한 수행능력은 로선승리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김정은령도자가 지닌 특출한 령도력과 인민적풍모는 선대 수령들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그 대로이다. 동유럽의 어느 한 인사가 《김정은령도자는 인품에 있어서 김일성주석을 꼭 닮았고 사상리론의 완벽성에 있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꼭 닮았으며 령도적능력과 자질, 인민적친화력에 있어서 두분을 그대로 닮았다. 조선인민이 김정은령도자를 통해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령상해보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평한바 있듯이 20세기의 태양으로 불리우신 두분의 위인상을 그대로 닮은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것은 조선인민의 최대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분의 령도령역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과 문화, 혁사 등 말그대로 전방위적이다. 그분께서 발표하신 조작들, 새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 현지도의 길에서 하신 말씀들은 말그대로 백과전서적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발표하시는 조작들은 공개된 것만 놓고보아도 전세계 사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문헌들이다. 바로 그래서 김정은령도자는 현 세기 세계 제1위의 영향력 있는 국가지도자로 만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영국신문 《가디언》이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조선을 헐뜯지 못하면 몸살을 앓는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조차 이를 특종뉴스로 보도한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어 수령의 위엄을 충정다해 받아들여나가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으며 거기에 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기 당과 수령을 목숨까지 바쳐가며 옹위하고로 선과 정책을 결사貫하는 그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령도자와 혈연의 정을 맺고 사상파 뜻과 정을 같이 하며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을 조선에서는 일심단결, 혼연일체라고 한다. 세상사람들이 《원자란 보다 더 위력한 무기》라며 부러워하는 이 일심단결이 바로 조선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대조선적대세력들이 《실현불가능성》의 하나로 중요하게 거론하는 경제기술적 조건이라는 것도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런이은 무력시위들을 통해 조선은 세계적 수준의 군수공업과 군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김정은령도자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사실상 인민군대를 믿고 내놓으신 전략적 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타격목표도 단숨에, 위훈을 세워도 단숨에》라는 전군가를 높이 올리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번개 같이 불이 번개 나게 단숨에 해제끼는 인민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도 단숨에 실현하자는 것이 김정은령도자의 구상인 것이다.

조선이 선택한 새로운 병진로선은 결코 《실현불가능의 선택》이 아니라 명백히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며 민족의 만년미래까지 내다본 전략적 선택이다.

조선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맹목적인 적대감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들어 아무리 《성공불가능》이요, 《실패할수밖에 없는 조선》이요 하다고 협박을 해도 조선이 선택한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진리성, 실천성을 훼손할 수도 약화 시킬 수도 없다.

병진은 김정은조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정의의 길, 강국에로의 길이다.

병진은 승리한다

사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 있다. 마음먹은대로 수소탄과 인공지구위성을 꽂꽝 만들어내는 최첨단수준의 국방부문 과학기술과 세계최첨단을 향해 돌진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창조하겠는지는 가능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이 방대한 침략무력과 《5대핵전략자산》이요, 《3대핵기동》이요 하는 것들을 몽땅 끌어들여 사상최대 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있지만 조선은 배심든든하여 경제적비약을 이용하기 위한 과감한 전투를 벌리고 있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결에 국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선은 벌써 조미대결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경제강국건설에 종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들을 다 끌어다놓고 으름장을 놓아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뜬뜬한 배짱이다.

바다물이 짜다는 것을 알려고 바다를 통채로 들이마실 필요는 없다.

조선은 세상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병진이라는 독특한 전략적 선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가 상상본적 없는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보무당당히 내짚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가 사회주의만복의 최대 목표라면 《천하제일강국》은 사회주의 조선이 가닿게 될 최종목적이다.

병진으로 승리하는 조선에 또 하나 솟아나게 될 사회주의만복의 상징 려명거리!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원쑤들의 발아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다는 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라고 하시며 려명거리건설 착공의 첫삽을 박는 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만천하에 파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퇴로 원쑤들의 머리를 후

70일전투, 어디서나 생산동음이 우렁차다

70일전투가 벌어지는 공화국에서는 련일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70일전투에 진입하여 3월 상순 전국적인 공업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로 장성한데 이어 최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재령광산에서 70일전투 쇠돌생산목표를 불과 24일만에 돌파하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상반년, 년간계획완수자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 일찌기 볼수 없었던 생산성과들이 창조되고 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는 선광계통을 대담하게 개조하여 연, 아연생산을 전폐없이 늘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의 하나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이지만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제재책동으로 오랜 기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 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시기에는 2차례 걸쳐 파쇄한 광석을 사별공정을 거쳐 다시 되돌이한 다음 세쇄하게 되어있던것을 수백m에 달하는 광석되돌이 계통과 사별공정을 대담하게 없애버리고 직접 세쇄하여 마팡공정에 보낼

수 있게 파쇄계통을 일신하였다. 뿐만아니라 수입에 의존하던 파쇄기동메달을 자기식으로 개조한데 이어 마팡기의 중요부분품인 카프링고무를 전혀 쓰지 않고도 마팡기가 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새 기술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창의고안들과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생산에 도입하였다.

결과 련합기업소에서는 70일전투기간 연, 아연함유량생산계획을 일평균 140%로 넘쳐수행하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도 내화물분광장에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무연탄가스화공정을 새로 구리고 내화벽돌생산을 시작하였다. 가스발생로

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 완성된 이 공정에서 내열성과 강도가 높고 수명도 종전의 2배나 되는 내화벽돌이 꽝꽝 생산되고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벽돌생산에 성공함으로써 해마다 이 공정에 쓰이던 수천t의 중유대신에 우리 나라에 혼한 무연탄으로 질좋은 내화벽돌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적대세력의 제재와 봉쇄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지만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든 공화국에서는 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생기와 활력에 넘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속에 섞여 취재길에 오른 나는 청신한 색갈의 《새옷》들로 단장한 건물들과 길가에 펴여난 아름다운 꽃들로 하여 겨울을 밀어낸 봄의 훈향이 느껴지는 거리를 거닐었다. 갑자기 나의 귀전에 길거리에 있는 식료상점에서 여리명의 너인들이 닫았을 한아름씩 들고나오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닭알값이 왜 이렇게 높어졌을까요?》

《그거야 닭공장들에서 닭알이 꽝꽝 생산되니까 그러겠지요.》

《그런것 같애요. 요즘 신문에서 보니 70일전투가 진행되면서 공장, 기업소들이 어느때없이 생산성과를 올리고 있다더군요.》

《놈들은 제재를 한다고 야단인데 오히려 공장

들은 더 씽씽 돌아가고 상품값은 점점 높아지니 자강력이 좋긴 좋구나.》

《이게 바로 제재〈효과〉라는거예요. 호호호...》

제재 《효과》!

무엇인가가 나의 흥벽을 세차게 내리치는것이 있었다. 지금 미국이 추종세력

의 생활을 국도로 어렵게 하여 《불만》을 유도하기 위한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인 것이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지난 수십여년간 적대세력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자강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갖추어왔다.

찾는 명제품, 명상품이 늘어나고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누려갈 문명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성과의 창조물인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에 날아오르고 핵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 그 위용을 만

신, 자기의 무궁무진한 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굳게 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적대세력들이 수십년간 단행해온 제재 《효과》이다.

부당한 제재의 희오리는 몰아쳐도 자강의 억센 토양우에 과학기술의 기판차를 힘차게 몰아가는 공화국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더 세차게 울리고 제품의 가지수와 향이 끊임없이 늘어나 인민생활에 더욱 편리한 조건들이 지어지고 있다.

하기에 앞에서 웃고 떠들며 걷고있는 저 너인들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이 제재를 할 때면 해라.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신심파악판에 넘쳐 희망찬 밝은 래일을 마중가고있는것이 아닌가.

김순정

수필

제재 《효과》에 대한 생각

들과 야합하여 국제적판도에서 감행하고있는 대조선제재는 군사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 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방향에서 악착스레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억제하고 경제를 질식시키며 인민들

하여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는 공화국인민들은 그 무슨 《추가제재》를 떠들며 날로 강화되는 적대세력의 제재속에서도 태연하게 이때까지 스스로 키워온 힘을 최대로 발휘하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달리고있는것이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사람들이 즐겨

방에 떨치며 적대세력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그 어디에서나 질높고 값싸은 우리 상품에 대한 찬양이고 더욱 좋아질 래일에 대한 신심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결국 적대세력들의 부당한 제재는 공화국인민들을 굴복시킨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것에 대한 궁지, 자기 힘과 지혜에 대한 확

만수교고기상점에서



만수교고기상점에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서 용감한 해병이 되겠어요.》...

나는 실내에 있는 육아원의 놀이장에 떨쳐진 희한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새라새로운 행복과 문명을 제일 선창 누려가는 원아들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았다.

오늘 행복의 절정에 올라 세상에 부림없이 자라는 저 원아들을 보고 누가 부모없는 고아들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그들에게는 사랑과 인력으로 누구나 다 품어안아주는 고마운 집(제도)이 있고 해빛보다 더 따사로운 사랑을 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

자기 집에 들어설 때 행운의 래프를 끊고 당당히 들어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고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앞으로 미래의 대문을 더 활짝 열어제끼는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될테이니 조선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 것인가!

재미동포 박윤자

나는 평양에서 국제아동절을 맞는 행운을 지녔다. 늘그막에 그래도 세월을 수십년 거슬러올라 잠시나마 생소년하여 동심에 잡겨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6월 1일! 내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의 원아들이 특별히 보고싶은 마음이 부쩍 동한것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멋쟁이궁전으로 일떠선 건물에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김정은령도자님께서 한해전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이곳 원아들을 찾아가신 뜻깊은 날이기 때문이였다.

나는 서방에서 오래 살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복지원》 등을 많이도 보이았다. 그럴 때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냘픈 모습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이곳에 들어서는 첫순간부터 나는 그 무슨 신선들의 동산을 찾은것만 같은 느낌이였다. 하나같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환하고 잘 생긴

원아들, 발랄하고 생기에 넘친 그들이 아름다운 색동저고리를 떨쳐입고 축복받은 자기들의 모습을 뽐내기라도 하듯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 그들에게 막 달려가 가슴에 껴안고 쓰다듬어주고싶은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새로 건설되기 전의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은 해당 일군들과 그 주변사람들외에는 어느 곳에 위치하고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김정은령도자님께서는

2014년 2월 어느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소문도 없이 찾아오시였다.

《아버지!》하고 부르며 와락 안겨드는 원아들을 한풀에 얼싸안아주시는 김정은령도자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친어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몇살이냐, 아픈데는 없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그분께서 부모없는 아이들도 우리 혁명의 계승

자, 미래의 역군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보육원과 교양원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6.1절을 맞이한 평양애육원의 원아들을 또다시 찾아주시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지금 당에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있다. 다음

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015년 양력설아침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김정은령도자님께서는 또 다시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가시여 새해를 맞는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분께서는 그날 원아들도 교양원들도 눈물속에 목에 부르는 노래

추어섰다. 전진식료공장에서 생산한 《금나락》상표를 단 겸은단빵매대였다. 알고보니 《금나락》겸은단빵이 손님들속에서 인기 높다는것이였다.

이곳 백화점에서 만난 리숙희 지배인은 손님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국내산 상품들을 많이 봉사하면서부터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어떤 날에는 하루에 수천명의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말대로 넓게 트인 1층홀의 매대들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료품들의 종류와 가지수가 어찌나 많으니 일일이 돌아보기 조차 아름찼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금성식료공장 등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빵류들과 우유, 사탕, 파자, 음료수, 국수, 떡, 말린나물, 파일, 수산물, 고기 가공제품들...

국내산 식료품들이 가득한 매대들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에게 마음에 꽂들어 어느것을 클라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선 어느 한 매대앞에서 멈춰 서거나 놀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는 피부세포의 재생과 단백합성을 촉진하고 항방사능작용, 항암치료 등 건강파피부로 화방지에 좋다고 소문난 《봄향기》, 《은하수》, 《선녀》, 《미래》화장품들을 비롯하여 없는것이 없었다.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묘향산파 향립

산맥에서 자라는 희귀한 천연기능성약재들이 들어있는 다기능성영양화장품들을 사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한껏 어려웠다.

《우리가 만든 〈봄향기〉, 〈은하수〉화장품들을 쓰니 살결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광택이 나면서 고와진다며 동무들도 말한답니다.》

《〈봄향기〉화장품도 좋지만 나한테는 〈미래〉화장품이 더 잘 맞는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하니 참 좋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제품에 대한 호평이였다.

리숙희지배인은 우리의 원료, 우리의 힘으로 만든 명제품, 명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을 들을 때마다 봉사자로서의 궁지가 한껏 넘친다고, 매일 상품판매정형을 따져보고 손님들이 요구하는 상품들을 더 많이 구입하여 봉사하니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경쟁열의가 눈에 띄게 높아고있다고 말하였다.

질좋고 우수한 국내산 상품들, 인민들의 호평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자기의 땀과 열정, 자기의 지혜가 깃들어있는 자기의것이 제일이라고.

본사기자 고영숙



◎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조선의 키운한 것 (9) ◎

세금이 없는 나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금은 오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따라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지구상에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해방 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탈적인 식민지조세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민족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였다.

그후 공화국에서 사회주의체제로 더욱 공고발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강화되는데 따라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거기에서 밝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 대로 하시였으며 그해 3월 21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 대로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법령은 1974년 4월 1일부터 공화국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석 풀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 때 대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 소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영국학자 토마스 스코트)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기자 존 헤이스)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이상이며 희망이다. 공화국은 이 이상, 이 희망을 완전히 현실화하였다. (일본 전국상공단체련합회 회장 우찌다 마사노)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 『세금에 매인 인생』이라는 아우성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만 놓고보아도 『꼴세』, 『혈세』로 불리우는 세금이 계속 뛰어오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파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담력과 배짱의 정치지도자이시다.

이 세상에서 미제 국주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나라는 조선이기에 력대 최고지도자들께서는 주권을 지키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비록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자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오시였다.

조선이 세계 『최강』이라고 일컫는 미국과 당당하게 맞대결 할 수 있는 무장력과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70년이상 대조선 고립 압살을 집요하게 고집해온 미당국의 대조선정책에 그동기가 있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은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을 제대로 안다면 더이상 적대관계로 나갈 수 없다. 적대관계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선은 더욱더 강해지는 나라다.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해온 유엔상임리사국들과 그 추종나라들도 조선과 적대관계로 나간다면 그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미당국자들과 그 추종세력은

</

예로부터 말은 행복파 불행의 문이라고 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행복이 올수도 있고 불행이 올수도 있거 때문이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대통령』이라고 으시대는 박근혜는 전자에 속하는가, 후자에 속하는가.

거짓말은 밥먹듯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박근혜에 대한 첫번째 표상은 『거짓말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때 내걸었던 수많은 보라빛 『공약』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행된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총 보아도 『국민대통합』은 『종북척결』 소동에 떠밀리워 『국민대분렬』이 되고 『국민행복시대』는 『국민불행시대』로, 『국민안전시대』는 『국민살인시대』로 되었다.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처럼 박근혜의 거짓말은 갈수록 계속되고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혁신』이니, 『청년고용』이니, 『일자리창출』이니 하는 거짓말도 그것이다.

남조선언론이 올해 1월에 한 박근혜의 『대국민 담화』라는 것을 분석해본 결과 온통 거짓말로 일관

가시돌한

오만, 독선, 불통은 박근혜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치 혜가 긴목을 감는다

입장을 바로 못하여 엄청난 화만 불러오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례의 저주와 증오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후자에 속한다.

독설녀

되어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박근혜가 말한 『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올해 경제발전을 3~3.2%로 전망한다.』 등은 아무런 과학적자산도 없는 공상적인 수자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말이란 얹지른 물과 같고 쏟 화살같아서 입에서 열변 굴리고 한번 벌어야 한다.

특히 집권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대 명색이 『대통령』이라는게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만 계속 늘어놓으니 남조선에서 『보육대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련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바꾸는 약속〉하였지만 〈약속바꾸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특동거짓말쟁이 박근혜의 집권 3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의 독선적기질을 엿볼수 있다.

아마도 힘을 모아 소리치는 막말과 독설이 힘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고 험한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박근혜의 유일한 방식인 것 같다.

집권 첫날부터 『사회전반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 『파김하고 결단성 있게 종북세력을 둘추어내라.』라고 악을 써대며 천부적인 독재자의 기질을 드러낸 박근혜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다른 생각 말고』라는 말, 이 말 한마디면 하수인들까지도 입을 다문다는 사실을 봐도 그

인간세상과 담을 쌓고 오래동안 혼자 살아온 늙은 박근혜로서는 독설과 막말이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독설과 막말의 근저에는 박근혜의 무지도 깔려 있다.

머리에 듣게 없고 나올 것이 없는지라 사람들로부터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수첩에 적힌대로 판에 박은듯 한 특유기소리만 들려준다.』, 『닭대가리』, 『닭그네』라고 조롱받고 있다.

실际 『수첩공주』라는 오명을 봐도 수하들이 없으면, 수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능아이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정치가로서도 너무 무능, 무식하다는 것이 남조

혜의 특기이다.

벌려놓은 일은 안되니 인민들은 들고일어나고 그러니 걸핏하면 짜증과 신경질을 내면서 독기를 풍기는 박근혜에게 그의 수하들까지도 말을 비치기 두려워한다고 한다.

『진도개정신』이니, 『원쑤』니, 『단두대』니, 『원흉』이니 하는 독설들만 연방내뱉는 박근혜를 두고 오죽하면 촉근들까지도 『무서운녀자다.』라고 몸서리치겠는가.

인간세상과 담을 쌓고 오래동안 혼자 살아온 늙은 박근혜로서는 독설과 막말이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인 것 같다.

제 집에서는 창그린 상통으로 아래것들이나 인민들에게 거짓말과 독설만 내뱉는 박근혜지만 집밖에나서면 주름진 상판에 꽂을 그리고 참새 복아먹은듯 횡설수설한다.

무지와 무식의 『수첩공주』가 해외에만 가면 『유식』을 뽑내느라 입부리가 될새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나 아시아와 유럽행 각기간에나 민족어는 집어뻥개치고 현지의 외국어로 말하는 박근혜를 두고 인민들은 물론이고 심복들도 『대통령』이라는게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민족적자존심과 체면마저 다 집어던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만도 늙마에 바람난 꿀을 해 가지고 『헬맹』이니, 『굳건한 동맹』이니 나불거리며 자

지식이 전혀 없어 신문기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녀자』가 집권자의 탈을 쓰고 있으니 남조선정치가 무지로 시작해서 무지로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무엇을 똑똑히 모르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현명한 처사이겠지만 계속 씨별여태 남조선사회가 혼란으로 수라장이 되고 남조선민심이 분노하는 것이다.

상전에겐 추파를 던지고 동족에겐 『도발』이니, 『옹정』이니 하고 독을 써대자니 그 몸에 붙은 입도 『고통』이 여간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독설과 악담만 쏟아놓는 자개바람난 혼때문에 목건사나 제대로 하겠는지가 문제다.

사대굴종에 절고 동족험담에 구린 입

기를 인정해달라고 상전에게 갖은 아양과 추파를 던지였다.

문제는 동족에 대한 험

『재수없는 주동이』

는 민족에게 재앙만 들씌우는 근원이다.

말이 마음이고 마음이 말인 것처럼 독재와 사대, 대결의식만 짹 들어찬 박근혜에게서 바른 말을 기대하는 것은 청승맞은 까마귀에게서 꽈꼬리소리를 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세치 혀가 긴목을 감는다고 바로 못하는 입견사로 인민들에게서 더욱 벼랑밭과 심복들에게서 조차 외면당하는 박근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징벌을 당하게 되겠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황금철

『수첩 공주』

선민심의 평이다.

명색이 『대통령』이라 『국정연설』이요, 『기자회견』이요 하지만 너무도 무식한 박근혜의 연설을 듣는 시청자들은 물론 기자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저런 입을 쳐다보아야 하는 국민이 정말 불쌍하다.』고 개탄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음...』, 『그...』, 『어...』하고 공공대는가 하면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 아니면 제편에서 신경질을 부리는 것도 박근

제 집에서는 창그린 상통으로 아래것들이나 인민들에게 거짓말과 독설만 내뱉는 박근혜지만 집밖에나서면 주름진 상판에 꽂을 그리고 참새 복아먹은듯 횡설수설한다.

무지와 무식의 『수첩공주』가 해외에만 가면 『유식』을 뽑내느라 입부리가 될새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나 아시아와 유럽행 각기간에나 민족어는 집어뻥개치고 현지의 외국어로 말하는 박근혜를 두고 인민들은 물론이고 심복들도 『대통령』이라는게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민족적자존심과 체면마저 다 집어던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 몸에 붙은 입이라고 함부로 놀려대는 박근혜

입니다.

참, 한가지를 빼놓을뻔 했습니다.

께끈해, 개근혜가 침략자 미국과 껴안고 입맞추며 꾀를 나눈 동족을 해치는 핵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만 놓고보더라도 그 무슨 『평양점령작전』이니,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이니를 짚어대면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려던 개근혜입니다.

께끈해가 이런 극단적인 망동을 벌린것이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제거』를 실현할 수 없다는 미국 상전의 『입김』과 때를 같이했다는것이 바로 세인의 평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맹』이요, 『우정』이요, 『친구』요 하며 상전의 발밑에 설설 기여도 얻은것은 『싸드』로 『한국』의 수도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말빨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단숨에 깔고 앉을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는 공화국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빼만 남은 앙상한 두주먹을 후들거리며 『생존의 불가능』, 『뼈아픈 대가』를 퍼터지게 웨쳐 대기 전에 악근혜는 이제 종말을 맞이 할 준비나 착실히 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북의 무자비한 보복전이 개시되기 전에 우리 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보따리 싸들고 피난가렵니다.

현미경

찍촉합의를 지켜 추석을 계기로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들이 올려나오고 있다. 남조선통일부는 『리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하겠다.』고 떠들면서 남쪽에 있는 흘어진 가족, 친척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탕을 퍼우고 있다. 보수언론들도 나서서 『상봉을 신청한 리산가족의 절반이 뜻을 이루고 사망』 했다느니, 『사망자가 생존자를 넘어섰다.』느니 뭐니하면서 마치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운동하고 있으니 낫가족도 이만저만 두껍지 않다.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와 주권행사를 걸고들며 북남사이의 마지막 협력사업이였던 개성공업지구에서 완전폐쇄시키고 외세와 함께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역적폐당이 『리산가족상봉』을 운운하고 있으니 낫가족도 이만저만 두껍지 않다.

그들의 낫거운 행위는 북남관계를 완전파산에로 몰아가 내외의 규탄 배격을 받는 저들의 치열리는 죄악을 가리워보려는 양은수, 『양』의 탈을 쓰고 짖어대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명백히 하건대 오늘날 북남사이에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에게 있다.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공화국은 지난해 전쟁접경으로 치닫던 엄혹한 정세 속에서 마련된 북남고위급긴급

안녕하십니까? 나는 남쪽에 사는 평범한 『민초』의 한 사람입니다.

예?! 함부로 『안녕하십니까?』 했다가는 『가만히 있으라』고 유탄을 당한다구요.

그러나 맞을 땐 맞더라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3년전 『대선』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인가구요? 너무도 혼란스럽게 지나보낸 때에서 잘 모르겠다구요?

—아,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 요물이 자기를 『준비된〈대통령〉』이라고 들까불던 일입니다.

예, 웃습니다. 그 요물이 바로 북악산 기슭의 푸른 집에 서슬이 푸르딩당해 계시는 바꾸네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 하자고 하니까 바꾸네는 정말로 『준비된〈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준비된〈대통령〉』 후보라는 말에 제일 먼저 귀가 솔깃했던 것을 부인 할순 없습니다.

어쩌다 일찍 퇴근해서 TV를 틀어보아도 그 소리요,

잠깐 바람이나 쏘여보자고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들에 서는 어김없이 이 말이 귀를 자극하군 했습니다.

귀한 살붙이들을 얹을하게 잊고 내 자식들을 살려내라며 호소하는 『세월』 호유가족들에게는 최루액을 들붓고 생존의 길이 막혀 투쟁에 나선 고령의 시위자에게는 실신할 때까지 전기방망이 『찜질』과 물대포를 쏘아댄것이 바로 제가 표

되는 독사근혜였습니다.

『용서하는것은 자신뿐』이라는 말이 귀전에 술렁술렁댈 때에도 저는 차마 그렇기까지야 하겠는가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인지하 만인지상』(한 사람만의 아래에 있고 만사람의 우에 있다는 뜻)이라는 『총리』가 순간에 나뒹어지고 술한 장관, 차관들이 줄줄이 파직당하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훨씬했습니다.

여당의 대표마저도 자기 독단과 전횡을 부리며 제 주장만 내려먹이니 바꾸네에게 『울리받기』 했다고 해서 친박계의 모두매를 맞는 정도

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2MB』라고 부르기 즐거한 리명박이보다도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드그네인 주제에 강권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훨씬했습니다.

그러나 독사근혜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합법적 정당이었던 통합 진보당이 제 비위에 거슬리자 서슴없이 『종북』의 감투를 쏘워 강제해산 시킨것을 보고 모두 기가 차게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유신』 독재시대에서만 볼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귀한 살붙이들을 얹을하게 잊고 내 자식들을 살려내라며 호소하는 『세월』 호유가족들에게는 최루액을 들붓고 생존의 길이 막혀 투쟁에 나선 고령의 시위자에게는 실신할 때까지 전기방망이 『찜질』과 물대포를 쏘아댄것이 바로 제가 표

하는 독사근혜였습니다.

먼저 『리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도 『이제는 참을만큼 참아왔다.』,

『북을 더이상 대화상대로 여기기 어렵다.』 고 북통을 터뜨리며 전면폐쇄해 치우고 북남관계를 종포성이 오가기 직전의 최악의 대결관계로 만들 어놓은것도 역시 발끈해

남조선에서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3년간은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깡그리 사라져 버리고 불신과 대결만이 차고 넘친 불미스러운 날이었다. 집권초기에 박근혜는 그 무슨 《신뢰드로세스》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마치도 저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할듯이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하지만 그의 《대북정책》인 《신뢰드로세스》라는 것은 대화의 간판밑에 공화국을 《변화》에 유도하고 무장해제하여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악한 대결정책이였다.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와 합의도 보수폐당의 동족대결책으로 말미암아 얼마 못가 물거품이 되군 하였다.

2013년 6월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판문점에서는 북남사이에 실무접촉이 마련되고 결파서울에서 북남당국회담을 개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회담이 박두하게 되자 박근혜폐당은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한 실무접촉때의 약속을 뒤집어엎고

민족의 통일열망을 짓밟은 반통일개혁 《정권》(5)

대화파괴자의 죄악의 행적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는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을 부렸다.

결국 남조선당국의 고의적인 대화방해책으로 하여 이 회담은 시작도 못해보고 파탄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폐당은 당치않게 그 무슨 《격》과 《급》이니, 《형식》 내용을 지배한다.» 느니 뭐니 하는 열빠진 수작질을 해대며 회담파란의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려고 책동하였다.

지난 2014년초 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백해무익한 비방증상을 끌어내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주었다. 공화국의 진정어린 노력에 의하여 2014년 2월 북남고위급

접촉이 마련되고 호상비방과 종상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적인 합의가 채택되었다. 공화국은 북침전쟁연습의 종포성이 올리는 속에서도 합의리행을 위하여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아량있고 성의있는 조치들을 헌신하였다.

그러나 박근혜폐당은 북남고위급접촉이 끝나기 바쁘게 돌아앉아 《북이 대화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발에 여념이 없다.》느니 뭐니 하는 고약한 수작끝에 외세와 공조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아 북남관계를 완전히 들부셔놓았다. 또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빠라살포망동을 계속 감행함으로써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허지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남조선당국

의 이러한 대결망동으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접촉은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계속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결국 보수폐당에게 있어서 북남합의는 저들의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치장물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북남대화를 저들의 동족대결의 흥심을 감추기 위한 기만극으로利用했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4년 10월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북남사이에는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온 겨레는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동족대결홍심이 끝수에 사무친 박근혜폐당은 인천에서 공화국과 마주앉아 북남관계개선을 약속한지 불과 며칠만에 쌍방간의 군사적긴장이 극도로 첨예한 서해열점

수역에서 공화국의 함정에 대한 위험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 마구 충질을 해대는 등 군사적도발을 확대하였다. 지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전선서부와 중부를 비롯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체제를 마구 훼는 범죄적인 반공화국비라살포에 본격적으로 매달리였다.

하지만 박근혜폐당은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미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등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여지없이 파괴하였다.

남조선보수폐당은 북남고위급접촉의 합의에 의해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북남당국회담에서도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공화국은 민

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의지로부터 북남고위급접촉을 마련하여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박근혜폐당은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미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등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여지없이 파괴하였다.

이처럼 오직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불신에 사로잡힌 박근혜와 같은 대결왕녀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 할수 없다는것이 지난 3년간의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하고 그 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였을뿐 아니라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현 남조선당국의 죄악은 시대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황주혁

바보의 《공조》구걸

바보는 바보를 찾았다니다는 속담이 있다.

박근혜에게 꼭 맞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동족을 향해 제재니, 《붕괴》니를 떠들던 박근혜, 공화국의 징벌의지에 혼비백산하여 천동에 놀란 개처럼 미국을 비롯한 해외를 또 돌아치고 있으니 말이다.

가판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저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바보처럼 미국상전은 박근혜를 껴안고 어루만지며 저들의 속심을 그대로 대변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 무슨 《경고》니, 그 누구의 《자멸》이니 하고 말이다.

그리고는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유일한 수단은 제재와 압박》이라

고 큰 바보와 작은 바보가 공화국을 모해하는 역겨운 2중창을 불러대느라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오래간만에 큰 바보네 집에 온 작은 바보는 눈온 날 개싸다니듯 돌아치며 기회를 놓칠세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북핵공조》에 힘을 보태달라느니, 제재와 압력에 총력을 집중해달라느니 하고 입에서 무엇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요사를 떨며 《국제공조》를 구걸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태평양너머에서 돌아댄 박근혜의 망동은 대결과 사대에 미친 대결악녀의 추악함의 극치였다.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상과 최강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함부로 입부리를 놀리다 못해 무엄하

게도 하늘의 태양을 어찌 보려고 《붕괴》니, 《참수작전》이니 하는 악담과 천하불망나니짓을 저지른 박근혜다.

그런가하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6.15의 《육동자》인 개성공업지구를 동족의 《돈줄》이라고 전면폐쇄하여 북남관계의 실오리같은 통로마저 끊어버리고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짤짜거리기도 했다.

동족의 손길보다 외세의 화약내배인 텔기슴을 더 좋아하고 민족의 화합보다 외세와의 앙합에 더 열광하는 사대왕, 동족이 잘되는것을 한사코 배아파하고 시비중상하고 빌길질하는 치마두른 놀부. 미쳐도 회복불능의 악

성미친중이다.

이런 미친 대결악녀를 하루빨리 때려잡아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의 민심이고 겨례의 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겨례의 분노와 증오를 재워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민족의 특등재앙거리 박근혜의 소굴 청와대를 조준경안에 넣고있다.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쓰지 않는다면 미친개처럼 해외를 싸다니면서 악당질로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대결악녀, 사대왕녀는 대포가 아니라 더 큰 불세례를 안겨서라도 잡아없애야 한다는것이 공화국군대의 분노와 보복의 의지이다.

황천길에는 순서가 없다지만 박근혜에게는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지옥으로 가는 첫번째 길이 열려질것이다.

윤영광

얼마전 미국의 워싱턴에서 그 무슨 《핵안전수보자회의》라는것이 열렸다.

가판은 거기에서 미, 일, 남조선의 집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그 무슨 《긴밀한 협력》이

나 《3각공조》니 하는 모의판을 벌렸다는 것이다.

다리부리진 노루 한궁에 모인다는 속담그대로이다.

년초부터 공화국에서 런이어 울려퍼진 자위적억제력의 퇴성벽력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이다.

또 죄지은 놈 발편 잡 못 잔다고 미국을 향한 공화국의 초강경 대응시 결불에 얹어맞지 않겠나 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일본은 어려운 모의판을 벌린 것이다.

그런다고 원님믿고

꿈쩍이나 하겠는가.

제힘으로 마련하고 다지고 강화해가는 최강의 자위적억제력과 자립적민족경제로대이면 무서울것도 두려울것도 없다는것이 공화국대와 인민의 담력이고 배짱이다.

오히려 중오와 복수심을 만장야하여 적대세력이 도발한다면 일격에 목사발내버릴 결전태세를 갖추고있다.

진짜전쟁맛, 정의의 불맛을 모르는 전쟁부나비들이 어떤 불세례를 받을지도 모르고 제재니, 암박이니 징고 깨불고있는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모처럼 차례진 이번 기회에 차라리 제 살구멍을 찾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나 《3각공조》니 하는따위이다.

그런다고 공화국이 꿈쩍이나 하겠는가.

본사기자 김정혁

황천길을 재촉하는 추태

지난 4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동해상에서 《련합해상사격훈련》이라는 것을 벌렸다. 《북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감행된 이 훈련에는 20여문의 각종 포와 무인기 등의 타격수단과 함께 여러척의 해군함정들이 참가하여 불장난소동을 벌리였다.

호전광들은 그 다음날에는 백령도에 배치된 직승기들을 리용한 실탄사격훈련을 감행하였는가하면 남조선군과 미군전투기들이 참가한 《요격련합훈련》이라는 것도 벌려놓았다.

최근 며칠동안에 보수폐당이 남조선의 하늘파랑,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이러한 군사적도발행위들은 가뜩이나 험악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북침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도적의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지속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지도 모르는 얼간망동이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멀적의 포신들에 만장약하고 원쑤격멸의 선제타격령만 기다리고 있다.

《련합해상사격훈련》과 《평양점령》을 떠들면서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미친듯이 벌리는 적대세력의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된 곳이 다른 조선반도이다.

현실은 누가 도발자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도적의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지속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지도 모르는 얼간망동이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멀적의 포신들에 만장약하고 원쑤격멸의 선제타격령만 기다리고 있다.

《련합해상사격훈련》과 《평양점령》을 떠들면서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미친듯이 벌리는 적대세력의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된 곳이 다른 조선반도이다.

현실은 누가 도발자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가를 여지없이 고발하고있다.

정광진

얼마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2017-2021년 국방증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2018년까지 《북의 장거리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탐지용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하며 《전력망파괴를 위한 탄소섬유탄을 개발》한다는 조항들이 들어있다. 또한 공화국을 선제타격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위체계》구축을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장거리공대지미사일, 《PAC-3》 등 수많은 무기들을 끌어들여기로 되여있다.

이뿐아니라 남조선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해상도발》에 대처한다는 미

명하에 올해부터 2020년 까지 20여척의 작고 속도가 빠른 유도탄고속함들을 새로 전조하여 서해열점수역에 배치하며 앞으로 공화국전지역을 감시할수 있는 정찰위성을 배비하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법석 떠들며 벌려대는 이러한 무기도입, 개발돌음은 한마디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얼흔이 나간자들의 가소로운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피뢰군이 장비한 미국산 무기들로 말하면 대부분 미국상전이 쓰던 구식무기이거나 수명이 지난 중고품들이며 자체로 개발했다는 무기들도 군부우두머리들이 협장군들과 공모하여 돈을 헤먹고 늑거리부분품을 가져다 맞춘 오작품,

불량품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군사문제에는 백치인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을 차지하고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군수산업계통의 협장군들과 짜고 저마다 목돈을 챙기느라 제정신이 보인다면 가차없는 불세례를 안길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를 이미 한 상태이다.

도발자, 침략자들에게는 추호도 자비를 모르는 공화국의 강위력한 자위적군사력앞에 남조선호전세력이 되여 목숨을 바쳐가며 싸워야 할 리유나 사명감도 없고 구차한 목숨부지와 제 배채우는데만 생각이 골몰해있는 자들이 온전한 무기를 들여올수 없고 개발할수도 없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그 무슨 《신형무기》니, 《실전배비》니 뭐니 하고 떠들며 공화국의 군대와 맞서보려는것이야말로 제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공화국의 군대는 미국을 겨눈 무자비한 정의의 핵조준경안에 박근혜역적 폐당이 자발로 들어오는 어리석은 놀음을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조금이라도 불순한 행동의 기미가 보인다면 가차없는 불세례를 안길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를 이미 한 상태이다

침습도 한번 빠진 합정에는...

남조선에서 《4.13총선기》가 눈앞에 박두했다.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의 발목잡는 《국회》 심판론으로 더 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을 비난하고 야당들은 《정권심판론》으로 보수여당을 공격하며 퍼터지는 싸움을 벌리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공약》들을 램발하며 민심을 얻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리당략만 주장하며 싸움질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반감은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벌린 결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수직으로 폭락하였다. 지어는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하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야당들과 무소속 출신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사태를 해결해보려고 《비상회의》니 뛰니 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돌아선 민

심을 어찌 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 민심이 《새누리당》에 저주와 규탄을 퍼붓는 것은 독재권력의 한갓 거수가 되어 반인민적 악정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3년간 남조선에서는 매일 매시각 각종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세월》호 대참사, 메르스사태, 경상북도 경주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와 고양 화재 사고, 장성료 양병원 화재 사고, 낚시배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고, 서울의 지하에서 렐차 충돌 사고 등 각종 사고들이 련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것은 한갓 자연 사고가 아니라 정치를 잘못 만난 탓에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는 인재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집권자의 손과 발이 되어 파쑈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 동족 대결책동에 만 열을 올리었다.

《북인권법》과 《레방지법》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강압 통과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로동 악법》 채택에 혈안이 되

여 날뛰었다는 것은 자타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족들과 인민들이 요구하는 《관련 법안》 채택에 온갖 방해를 놀아 원성을 산 것도 역시 《새누리당》이다.

이런 반역당, 반인민적인 독재의 거수기를 누가 고와 하겠는가?

더우기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후보들을 보면 민심이

왜 이 당에 분격을 터뜨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로 내세운 인물들 속에는 지난 해 4월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의 막말로 피해자가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가 있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에 책임이 있는 회사장도 있다. 그런가하면 《유신》 독재자를 합리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에 앞장서 날뛴 자도 있고 철도 민영화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는 것도 성차지 않아 생존권을 위한 그들의 파업투쟁을 강경 진압하라고 요구

한 전 《코레일》 사장도 있다. 청와대 수석이니, 비서관이니 뛰니 하며 박근혜의 오른팔, 원팔 노릇 하던 자들도 수두룩하다.

이들이 선거에 뛰여든 것은 현 《정권》의 남은 임기기간 《국회》를 다시 장악하여 파쑈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이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후보로 나선 그들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을 지지해달라.》 고 목에 피대를 세우고 이 끝에 저 광복 돌아치며 지지표를 구걸하고 있다.

미숙한 곰도 한번 빠진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거늘 박근혜 《정권》에 속아 3년 동안 온갖 고통과 불행을 겪은 남조선 인민들이 또다시 그런 쓰디쓴 전철을 되밟겠다고 하겠는가.

친미 굴종과 파쑈 폭압, 반인민적 정치로 남조선을 사람 못살 지역으로 더욱 전변시키고 이 땅에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게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강문영

이권 잡귀신들의 부질없는 광대 놀음

최근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북인권 특사》를 끌어들여 《북인권》 문제를 가지고 쑥덕 공론을 벌렸다.

한마디로 지금 벌리는 북침 전쟁 연습 소동과 함께 범죄적인 《인권》 소동까지 병행하여 공화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때를 맞추어 남조선 보수당국이 서울에 있는 유엔 《북인권 사무소》 활동을 여론화하면서 공화국을 고립 압살해보겠다고 지랄발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동족 대결에 얼마나 환장이 되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 보수당국이 미국의 《북인권 특사》를 끌어들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 모략 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은 선군의 한 길을 따라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인권》 잡귀신들의 부질없는 광대 놀음에 불과하다.

열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공화국에 한번도 와보지 못한 《인권》의 허울을 쓴 미국과 남조선의 어중이떠중이들이 자기를 품에 안아 키워 준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의 허황한 거짓말만 곤이 외우면서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은 남의 현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제코나 씻어야 마땅하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는 종기류 범죄와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살 사건 등은 미국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수많은 근로대중이 온전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없어 생존권을 심히 위협당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의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완전 실업자와 몇 개월씩 고용되어 일하는 반실업자는 1 400여 만명,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형세 자영업자는 400여 만명으로서 절대 다수의 근로대중이 실업과 빈궁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못 가고 취업이나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없다는 무직자, 학교 졸업을 미룬 학생 등 《사회 박청년》은 456만 2 000여 명으로서 20대 청년 총의 48%에 달하고 있다.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너무도 살기 힘들어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로부터 집을 포기하고 인간 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세대》로 전락되다 못해 귀중한 목숨을 서슴없이 끊는 자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남조선이다.

《금수저》로 태여나면 영원한 《금수저》로, 《흙수저》로 태여나면 영원한 《흙수저》로 되는 사람 못살 인간지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솟구쳤으면 《나에게 죽장을 달라》는 절규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오고 있겠는가. 그처럼 《인권》을 떠드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오물은 청보에 싼다고 해도 역시 오물이다.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이 그 무슨 《인권》 문제를 구실로 공화국을 고립 압살해보겠다고 발악할 수록 씩어빠질대로 씩어빠지고 문드러진 저들의 추악한 반인권 적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본사기자 김 응철



로동자는 빈곤에 허덕인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로동자들 투쟁

대로 받지 못하고 자식키를 걱정, 살아갈 걱정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민주로총의 최저임금인 상투쟁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 실현 투쟁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투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서명 운동, 총파업, 집회 등 다양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 《정부》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탕독되었다.

결의문은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는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어버리던 때를 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회》 의원 선거를 계기로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사기 공약을 들어놓을 경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문은 경고하였다.

결의문은 소득 불평등 해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저임금 상투쟁에 전체 노동자들이 떨쳐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패배자의 한숨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북의 핵보유를 저지시키는데 실패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미국이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술한 시간과 정력을

서도 핵을 만들었고 병진의 기치 아래 끝까지 이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류례 없는 《초강도 재제》 속에서도 려명거리 건설을 선포하고 착공식을 가진 데도 인민들을 하루빨리 문명국의 주인으로 만들

려는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하도 뜨거워 인민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준동에 정의의 불서례를 들씌우려고 만단의 대비 대세를 갖추고 있는 공화국이다.

세계가 다 모르는 군사적 힘

미국은 자기식의 《기준》으로 세계를 평가한다. 그 《기준》으로 전혀 절수 없는 것이 공화국의 사랑의 힘이다. 공화국은 인간 사랑의 대화원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도 사랑과 도덕의 리로 이어져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 기초에는 사랑이 놓여 있다. 사랑을 떠나 공화국을 이해할 수 없다. 세계가 경탄하는 공화국의 일심 단결도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은 공화국의 군사적 힘을 다는 모르고 있다. 지난 조선 전쟁 시기 보병 총으로 원자탄을 가진 미국과 대결하여 무릎을 끊게 한 공화국이다.

그러한 공화국에 지금은 적의 본거지들을 마음대로 두들겨패고 불바다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 공격수

단들이 있다.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 억제력이 있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 세력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도 가지고 있다. 탄도 로켓을 대기권에 재진입시키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화국은 탄도 로켓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짧은 기간에 연구 개발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정밀 유도 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로서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미군 기지로 정확히 소멸 할 수 있다.

공화국이 쏘면 두들겨 맞고 퍼부으면 재더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언론들이 《북조선의 〈화성-14〉 전투부 키로 톤급 핵탄이 아니라 메가 톤급 수소

탄이 장입된다. 1메가 톤은 상용 폭약 100만에 해당한다. 만일 전시에 조선 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4〉 호를 1발만 쏘더라도 미국 본토의 25%가 60초만에 초토화될 것이다. 지금 북조선은 증폭 분열 탄과 수소 탄을 순환식으로 기동발

빈 말을 한다

사는 엄청난 선제 타격 능력을 가졌다》고 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 출격 고체 로켓 발동기 지상 분출 및 계단 분리 시험에서 성공한 공화국에는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력한 무기들도 있다.

모른다

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라는 공화국의 추상 같은 선언에 기가 꺾여 사죄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0년대 초 적대 세력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 압살 소동에 준전시 상태의 선포와 핵 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의 단호한 탈퇴로 맞서 미국으로 하여금 조미 기본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 담보서 한까지 바치게 한 공화국이다.

《도발자들의 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 군대의 전통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거듭 경고한 공화국의 군대가 자기 형태에 도발적으로 포탄을 마구 쏘아댄 호전 세력들에게 백두산의 희생 벽과 같은 무자비

한 정벌을 가한 것도 세상이 아는 사실이다. 공화국은 빈말을 모르는 나라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려는 백두령장의 결심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핵 선제 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 물이 아니라고,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저 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은 선군 조선에서 울리는 정벌의 선언을 결코 무자비 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의 자그마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마저 없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화국의 타격이 시작될 경우 침략의 본거지들은 순식간에 재가루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은 공화국을 바로 보고 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두고 두고 후회할 파국적 재난만을 미국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다.

김형기